





성목, 자연의 역할을 따르다

제법 몸도 두터워지고, 잎도 무성해졌습니다. 비로소 나무다운 태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를 건너는 데에 이전만큼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잎을 머금고 꽃을 피우며 자연의 주기에 따라 제 몸을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성목은 자연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숲
에서
누
리
다



CONTENTS

www.forest.go.kr

이번 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다

04 Prologue

성목, 울곧게 자리 잡다

06 Special Theme 1

숲에서 삶을 묻다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재목
- 성인의 역할

08 Special Theme 2

숲에서 공간을 향유하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숲속 책방
- 바람숲그림책도서관

14 Special Theme 3

숲에서 사람을 만나다

숲에 머물며 삶의 방향을 찾다
- 신원섭 교수



누리다

18 숲이 흐르다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 시대
- 목조 용품으로 실천하는 지속가능성

22 전지적 임업인 시점

남해 끝에서 섬애와 마주치다
- 남해섬애약쑥영농조합법인 배원열 대표

26 자연이 차린 밥상

봄이면 찾아오는 찰나의 맛
- 두릅과 소고기

30 반려 식물 가이드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다
- 라벤더



배우다

32 산촌에 머물다

삶이 시작되는 산, 내가 살아야 할 땅
- 풍수지리를 통해 알아보는 산촌 지리

36 제철 숲 여행

그간 소홀했던 나를 보살피다
- 잣향기푸른숲

42 숲속 도서관

오늘도 나는 숲으로 간다
- 나무의 말이 좋아서

46 함께하는 산림

숲을 위한 진지한 축제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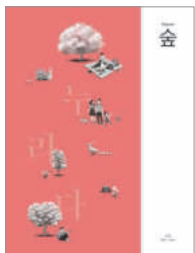
48 특집

신속한 산불 진화 어떻게 이뤄졌나
- 안동 · 고성 산불

50 산림청 소식 / 독자 메시지

2020 3+4월호 독자의견

VOL.35 MAY + JUNE 2020



COVER STORY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고비를 넘겨온 성목은 이제 어엿한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성인 역시비슷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따르며 몇몇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납니다. 이번 〈Magazine 숲〉에서는 번듯한 숲의 구성원 으로서의 성목과 함께 숲이 베푸는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보았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0년 05월 22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 042-481-4074

편집 ·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 youtube.com/forestgokr

📷 instagram.com/forest_korea

📘 facebook.com/forestkorea

🐦 twitter.com/forest_news

An adult tree,
sprouting upright

성
목,
올
곧
게
자
리
잡
다



그토록 작던 씨앗은 겨우 싹을 틔우고, 힘겹게 잎을 드리우며 어엿한 성목이 됩니다. 계절의 마디를 건너고, 물줄기를 찾아 깊숙이 뿌리를 뻗어 내리면서, 종종 병해충 탓에 깊이 앓기도 했지만 가까스로 기운을 차리고, 보다 견고해진 모습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비로소 나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성목은 계절을 거뜰 거치며 제법 의연해집니다. 물을 흠뻑 주면서도 혹여 유실이 되지는 않을까, 조바심에 떨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식욕 좋게 물을 가득 머금습니다. 제법 자라 별도 한껏 쬔 수 있고, 두터워진 덕에 웬만해서는 쉬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월 속 갖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처럼, 성목은 태연하고 단단합니다. 긴 시간, 숲에 머무르는 동안 성목은 올곧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성목은 나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차례입니다. 벌에 몸을 비비며 탄소를 들이 마시고, 산소를 내뿜으며 한 줌의 숨을 선물하고, 생물들의 중요 서식지를 마련해 많은 생명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듬습니다. 기특하고, 또 대견합니다. 때문에, 이토록 무사히 잘 자리준 성목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재목

성인의 역할

글 이동혁 풀꽃나무 칼럼니스트

어엿한 숲의 일원이 되기까지 나무에게는 지난한 시간이 흘러갔다. 어둠 속에서의 빛을 향한 몸부림, 동종 혹은 타종과의 끊임없는 부대끼,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 등등 혹독한 시련을 겪을수록 나무는 더욱 단단한 중심을 만들며 돌레를 키워왔다. 그 모진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숲에 한 점 초록의 기운을 더하고, 덕쳐울 역경을 숲의 일원과 함께 견뎌내며 나무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일대기를 차곡차곡 써나갈 준비가 되었다.

그렇다고 외형만 어른 나무를 닮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밀었던 가시를 하나둘 제 몸 안으로 거둬들이고, 아프게 찢긴 상처를 고스란히 내면화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나무는 내적으로도 훌쩍 성장한다. 그리하여 몸속으로 아름다운 결이 생겨나고 점점 나무다운 나무가 되어갈 때라야 비로소 성목이 되었다고 인정받는다.

또한 성목은 자신을 길러준 숲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 숲이 아니었다면 나무의 성장은 오히려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숲의 품속에서 자라난 나무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맡겨진 책무를 다한다. 커진 제 몸집과 역량에 맞는 역할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때라야 성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성목이 되었다고 해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는 없는 법이다. 숲에서 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고 익힌 것도 숲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숲의 규율에 순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나무 본연의 모습은 한 순간에 갖춰지지 않는다. 온전하게 자라난 성목은 자신이 속한 숲에서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을 오롯이 수행하는 초록빛 구성원이다. 그렇게 잘 짜인 성장의 각본대로 믿음직스럽게 커 준 나무에게 숲은 흔쾌히 자신의 미래를 맡긴다.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람은 사회의 품속에서 점점 성숙한 어른이 되어간다. 어른이 된다는 건 육체적 성숙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해와 배려를 배우고 여러 사회규범을 익히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다는 건 육체적 성숙보다 정신적 성숙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다.

어른 흉내를 낸다고 해서 어른인 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흉내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무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만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 어설피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의 자제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이라면 자신을 길러준 사회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성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아무도 모른다.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성목이 된 나무에게 숲에서의 역할이 맡겨지듯 성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역할이 맡겨진다. 성인이란 사회가 자신에게 맡겨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낼 줄 아는 최소 단위의 구성원이다.

나무처럼 사람도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혼자 살 수는 없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은 가장 사람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는 공동체가 정한 규범을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만을 성인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을 길러준 사회에서 살 준비도 일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 또는 미성숙한 어른에 불과하다. 믿을 만한 재목에 숲이 미래를 맡기듯 사회도 준비된 성인에게 안심하고 미래를 맡긴다. ☁

동심으로 돌아가는 숲속 책방

바람숲그림책도서관

여러 방향으로 바람이 나뉘어 불고 주위엔 숲이 가득 펼쳐진 강화도 어느 산자락,
소담스럽게 자리한 그림책 도서관이 있다. 전면에 난 창으로 수시로 빛이 와 들고, 저 너머론 숲이
물결처럼 일렁이듯 가볍게 흔들린다. 저녁 어스름이 일찍이 찾아올 적이면 도서관은 별처럼 빛난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바로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이다. 이보다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글 매거진 숲 편집실



01



02

그림책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림과 글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울리며 특별한 의미를 끌어낸다는 점, 보다 직관적인 표현으로 독자에게 쉽게 와 닿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으나 쉬이 실천하기는 어려운 용기나 희망, 우정, 믿음과 같은 진실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 이 밖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과 유년 시절의 정서를 만들어주고, 가끔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로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해주기도 한다는 점. 그렇기에 바람숲그림책도서관 관장이자 그림책 작가이기도 한 최지혜 관장이 그림책에 빠져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연의 모습을 닮은 도서관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이 처음 들어선 건, 2014년 2월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었다. 여태껏 그림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도서관이 없었다는 사실이 의아할 만큼,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여러 기관의 사서로 근무해온 최지혜 관장은 개인적으로 소장해온 그림책과 기증 받은 도서를 합하여 삼천 여권의 그림책을 기반으로 첫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서관이 만 여권에 다다를 만큼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먼 발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늘었고, 각종 기관에서 견학을 오는 등 점차 소문이 퍼졌다. 더불어, 책의 규모도

조금씩 늘기 시작해 수용할 도서가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다. 자연스레 공간의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이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금액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다행히도, 공공 도서관의 규범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오히려 그림책을 누리고자 하는 취지에 관장의 취지에 공감하여 많은 이들이 후원을 보내왔고, 2019년 10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렇게 재탄생된 도서관은 시설이 위치한 자연의 모습을 닮아 설계됐다. 들과 산, 숲길, 숲속을 내부 공간에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각 구획마다 그림책의 장르를 구분해 정리해 놓았다. 우선 넓은 바닥에는 들이 자리하고, 그 끝에 산의 모습을 띤 계단이 경사를 따라 높게 지붕과 맞닿아 있다. 옆으로는 작은 오솔길처럼 숲길을 조성해 자연생태 관련 서적을 배치해놓았고, 복도 끝에는 우거진 숲을 형상화 한 원형의 동굴 공간을 마련하여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모습처럼, 인연·평화 주제의 그림책들을 구비해놓았다. 아이들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편안하게 책을 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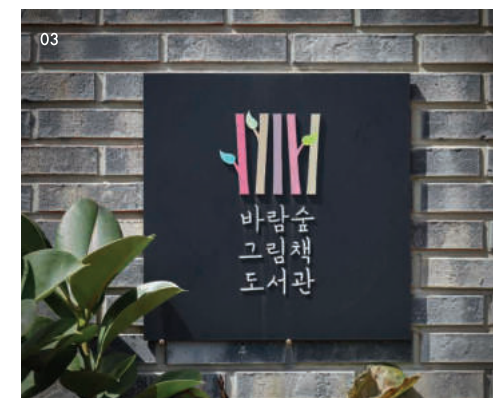
그림책을 읽기만 하지 않고, 쓰고, 체험하며 즐길 수는 없을까. 그림책의 접근성이 다른 도서에 비해 비교적 쉬운 까닭은 바로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특성 때문이다. 아이들이 쉽게 빠져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으며 상상하고, 섬 없이 질문한다. 어떤 질문은 종종 예기치 못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천진하고 또 우스운 질문들도 있다. '왜'냐고 묻는 아이들의 물음에는 이제 막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순박한 궁금증이 서려 있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시각을 만들어감과 동시에 번뜩이는 상상과 창의성을 발휘한다. 상상은 그저 허황된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의 도구에 가깝다. 바람숲그림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림 작가 교실은 바로 그러한 아이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그림 작가 교실은 그림책 작가인 최지혜 관장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현재 6기까지 수료되었을 정도로 참여도도 좋다. 아이들은 글과 그림을 구상하며 감각 및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운다. 더불어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이로부터 여과되지 않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나아가 각 개인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아이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탄생된 그림책은 출판사를 통해 실제 출판물로 만들어진다. 제작된 결과물은 도서관에 배치하여 다른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읽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상상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캔버스이기도 한 것이다.

01 도서관 정면으로 난 창으로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02 매월 신간 그림책을 주기적으로 배치해 놓는다.

03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은 전국 최초의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다.



03

그림책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사소하고도, 낭만적인 질문 같지만, 최지혜 관장은 그림책으로 조금 더 밝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2016년을 시작으로, 매해 한 곳씩 라오스 오지의 학교에 그림책 도서관을 조성해 오고 있다. 최지혜 관장의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여 바람숲그림책이 터를 넓혔듯이, 그 기대와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듯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외교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공공외교 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라오스 아이들이 직접 그림책을 기획·집필하여 실제 인쇄물로 제작됐다. 몇 권의 도서는 현재 바람숲그림책 전시관에 배치되어 있다. 비록 언어가 다를지 언정, 그림책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때문지 않은 솔직함과 아이들의 마음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그림책의 매력이 아닐까. 비록 말로 쓰여 있지만, 언어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 그림과 글이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며 의미를 끌어낸다는 것. 아직 세상과의 대면이 서툰 아이들에게, 언어에 기대지 않고도 이토록 자유롭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기는 그림책

그림책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만 도서관을 찾는 것은 아니다. 최지혜 관장은 그림책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 특정 연령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0세부터 100세까지 고루 즐길 수 있다는 게, 그림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림책을 즐기는 데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닌 마음가짐이 아닐까. 곱씹어보고 함축된 의미를 발견해보는 호기심 어린 아이의 태도라고나 할까. ‘시시콜콜’은 바로 그런 어른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시시콜콜은 매달 주제를 선정하여, 각자 그에 맞는 그림책을 가져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테면, ‘시간’이라는 주제로 ‘똑딱’이나 ‘시작, 다음’과 같은 연관된 그림책을 나누어 보고, 함께 토론한다. 직관적이고, 천진한 그림들 사이로 드러나는 거대한 질문들은 그림책을 더욱 다층적으로 만들며 깊이를 더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답은 단순함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럴 때, 그림책은 가장 간편한 해답이 된다.

숲과 바람 한복판에 놓여있는 도서관이니 만큼,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도 들기 마련이다. 도서관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덜어내고 산차락 이웃들과 어깨를 맞추고 앉아 있는 도서관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쉬이 발을 떼기가 어렵다. 그 심정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이곳에선 하룻밤 지내고 싶은 이용객들을 위해 스테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 공간이라고 하지만, 따로 특별한 시설이 있지는 않다. 기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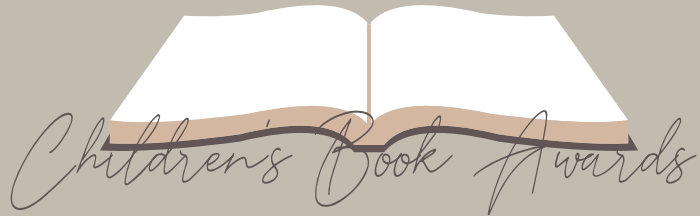
사용되었던 도서관을 조금 손보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늑한 다락방에서 바라보는 아늑한 그간 도심에서 누려보지 못한 밤의 민낯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밤의 풍경과 서재마다 가득 들어찬 그림책과 바람이 나른하게 실어오는 풀벌레소리. 참으로 근사하다.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이 최초의 그림책 전문 도서관으로서 문을 연지가 어느덧 6년이 되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느리지만 꾸준히 좋은 영향력을 이어가며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에 물을 들였다. 그림책 한 권으로부터 가닿는 마음과 진솔한 물음, 가끔은 잃어버렸던 무언갈 겨우 되찾은 것 같은 귀중한 시간들이 그렇게 바람숲그림책도서관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 ☺

04 그림 작가 교실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작품들은 실제 인쇄물로 제작되어 도서관에 배치된다



INFOGRAPHIC



세계적인 그림책 상^賞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좋은 문학이 있는 만큼, 좋은 그림책이 있다. 탄탄한 서사성과 세련된 기획,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참신한 그림이 실린 작품은 하나의 종합 예술로 평가된다. 그 가치를 기리기 위해 유구한 역사동안 세계적인 그림책을 세상에 알린 뿌리 깊은 상들을 살펴보았다.



BIB 상

Biennial of illustration Bratislava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2년에 한번 씩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 최고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입니다. 그림책의 예술적 가치와 새로운 시도가 평가 기준이며, 그림책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척도로 인정받는 공모전입니다. 수상은 그랑프리상 1명 / 황금사과상 5명 / BIB 훈장 5명을 시상합니다.



안데르센 상

Christian Andersen Awards

국제 아동 도서협의회(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IBBY)에서 주관하는 상입니다. 1956년부터 짝수 해에만 수여되고 있으며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은 1966년부터 수여되었습니다. 세계의 그림책 어워드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이유는 책 한권에 주는 상이 아닌 한 작가의 평생 동안 이뤄낸 작업에 대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볼로냐 라가찌 상

Bologna Ragazzi Award

라가찌상은 1966년부터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인 디자인을 기준으로 내용과 미술적 표현이 뛰어난 그림책에 주어지는 상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동도서를 출판하는 전 세계 출판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상작품의 도서와 포스터가 도서전 현장에서 집중 홍보되며 전시가 끝난 후 전 세계 아동도서전에 순회 전시됩니다.



칼데콧 상

The Randolph Caldecott Medal

미국 도서관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는 미국에서 해마다 발행된 그림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에 뉴베리 메달(문학 부문)과 칼데콧 메달(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을 수여합니다. 1922년에 존 뉴베리의 이름을 딴 뉴베리 메달이 어린이 문학상으로 먼저 만들어 졌고 이후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1937년부터 칼데콧 메달이 제정되었습니다.

숲에 머물며 삶의 방향을 찾다

신원섭 교수

‘근심이 쌓이면 대관령 소나무 숲을 찾아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보면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신원섭 교수가 말했다. 그렇게 고백하듯 말하는데, 눈앞에 초록이 번지기라도 하듯 잠시 생기가 일었다. 요즘은 교내 오솔길에 자주 들러 피로를 푼다고도 했다. 마치 물줄기를 찾아 다리를 뻗는 뿌리처럼 숲을 찾아다니는 듯 보였다. 어쩌면, 지난 30여 년간 산림 치유학에 매진해온 세월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걸지도 몰랐다. 숲이란 인류의 유전적 고향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신원섭 교수를 찾아가 진솔한 숲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숲, 인류의 고향이자 터전

충북 진천, 무제봉의 한적한 산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 산 저 산을 집 안방처럼 드나들거나 불을 땔 땔감을 줍고, 가끔 불법으로 벌목을 하려는 벌채 끈을 찾아다 어른들에게 이르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그렇게 숲에서 나고 자란 경험으로 결국은 산림 연구에 발을 들이게 되었으니, 그를 키운 팔 할은 숲이 아닌가 싶다. 마루에 앉아 산등성으로 비치는 계절의 낮빛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상상하고 꿈을 품던 시절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라고, 그에게 있어 숲을 만나러 간다는 말은 마치, 고향에 들르러 간다는 뜻과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숲은 과연 무엇인가. 어쩌서 숲인가. 왜 숲은 경계를 허물고 마음의 빗장을 열도록 부추기는 걸까. 숲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신원섭 교수가 줄곧 쫓아온 질문이기도 한, 이 물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구에서 인간의 역사가 7백만 년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는 거의 대부분 숲에서 수렵과 채취로 살아왔다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인류 역사의 99.9% 가량은 아프리카 사바나 등의 숲에서 수렵과 채취로 삶을 일구어 왔다는 거죠. 숲에서 나와서 생활한 시간은 불과 1만 년에서 5천 년쯤 밖에 되지 않아요.” 자그마치 7백만 년에 이르는 세월이다. 1만 년이란 시간은 진화의 척도에서 비추어보자면 지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숲을 찾고, 또 머물며 평온함을 느끼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1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하며 문명을 이룩해 온 것에 반해, 신체적·심리적 유전설계는 아직 덜 진화되었다는 뜻이다. 숲으로부터 전해 받는 위안은 사회적 시간과 유전적 시간의 간극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숲을 찾는 이유는 아마 그리움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언젠가 꼭 한 번 들러야 할 고향처럼, 인류에게

Shin wonsoop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숲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장작을 패고, 숲을 놀이터처럼 누비던 경험으로 자연스레 숲을 공부하게 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0대 산림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산림치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치유학과 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숲은 늘 보고 싶은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삶의 본질이자 인류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속도에 쫓겨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자연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소음이 들끓는 도시에서 하루하루 지쳐가며, 매 시 매 분마다 벌어지는 사건이나 뉴스 등. 몸과 마음이 하루마다 닳아가고 있다는 것이 체감될 정도다. 그러니, 우리는 숲으로 가야 한다. 숲에서 비로소 온전한 나를 되찾아야 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회복의 적정 장소는 바로 숲이에요.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숲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특별한 의식이나 노력 없이 감상하기에 좋고, 또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잖아요. 수시로 귀에 들어오는 소음 대신, 잔잔한 고요가 차 있고, 한 평 남짓한 사무실의 내 자리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간을 주잖아요. 그러니 숲으로 가세요. 자주 들러요.”

그의 말처럼, 숲은 우리에게 최적의 치유 장소다. 숲으로 가라고, 자주 들르고, 또 오래 머물다 오라고 떠미는 그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본다. 우리는 이제껏 숲을 얼마나 마주하고 살아왔을까. 동네마다 가볍게

●
숲을 누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저 근처 어디로든 나무가 우거진
장소를 찾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곤 숲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혼자만의 방을 갖듯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01

- 01 산림섭 교수는 틈이 날 때마다 교내숲을 누비며 생각을 정돈한다.
- 02 산림치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다.



02

오를 산 하나쯤은 있으면서도 귀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숲으로부터 멀리 지나쳐오지는 않았는지.

“숲을 누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저 근처 어디로든 나무가 우거진 장소를 찾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곤 숲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혼자만의 방을 갖듯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숲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신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예요. 삶을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숲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

때문에, 산림섭 교수는 학생들에게 숲을 선불리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에서 밀접하게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만의 숲 공간을 찾아도 좋고, 혹은 하나의 나무를 지정해 자주 들르는 것도 괜찮다. 일단, 숲으로, 나무로 향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주저한다. 실은 아무렇지 않은 것을 두고도 오래 망설이며 두려워했던 경험을 다들 겪어본 적이 있을 거다.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숲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각자의 숲에 도착해서는 각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다. 과제는 숲에서 활동한 체험을 적어내면 된다. 숲은 제약이 없고, 규율이 없으므로 누리는 방식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복잡해진 머릿속을 차분히 게워내거나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산책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숲을 날마다 감상하여 기록한다. 신체적 ·

심적 변화 과정을 적어 내려가는 사람도, 혹은 숲을 온전히 감각하며 생태 관찰 일지를 써내려가는 이도 있다. 때로는, 숲에 잠기듯 머물며 지나온 삶을, 지나온 흔적들을 되비추며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한다. 저마다의 이유와 방식은 다를지언정, 숲이 그들에게 주는 이로움은 변치 않는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숲은 신체적, 심적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학적 사유의 공간이기도 해요. 숲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과정을 들여만 봐도, 그곳엔 삶의 진실한 가치가 담겨 있어요. 자연의 주기에 따르고, 주변 생물과 공생하면서 늘 균형을 이루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에도 그러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숲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숲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하는 일도 중요하다. 산림섭 교수는 도덕적 관점이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간에도 윤리를 바탕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나무 한 그루조차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그 효용성을 판단해왔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바로 자연을 동등한 존재로써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산촌에서 자라, 숲을 돌보며 살아온 산림섭 교수는 이 맘 때 즈음이면 보고 싶은 나무가 여럿 떠오른다고 했다. 겉으로 난 창으로 초목이 제법 우거져 보이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닌 듯싶다. 산수유나무, 소나무, 또 요즘은 유독 생강나무가 그림다고, 산림의 가치를 연구해 온 30년, 그의 삶은 여전히 숲과 함께 번져가고 있었다. ☺



제로 웨이스트 시대

ZERO WASTE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 시대

목조 용품으로 실천하는 지속가능성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일회용품 및 생활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장을 보는 등의 전반적인 생활 활동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일 것이다. 그렇게 단 몇 분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 용기의 자연 분해 소요시간은 대략 50여년 정도다. 우리가 소비한 단 5분의 편의가 50년에 걸쳐 겨우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언뜻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3억 톤에 이른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운동은 더 이상 소수의 몫이 아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목조 생활 용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모두 친환경벌채로 이루는 소중한 가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목조 용품, 플라스틱의 대안이 되다

우리는 익숙하면, 종종 그 귀중함을 잊곤 한다. 언제까지고 존재할 것 같고, 지금의 모습대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매 하루가 비슷하다고 한들 어제와 다른 오늘처럼, 모든 건 시간에 따라 닳기 마련이다. 삶의 보금자리이자 인류의 고향이기도 한 지구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나날이 발전해감에 따라, 그와 연관된 환경오염 역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플라스틱은 폐기물의 약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그렇게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길다. 아직도, 썩지 못한 플라스틱들이 지구 곳곳에 잠겨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 빈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2010년에만 최소 480만에서 최대 1270만톤이 해양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환경은 물론, 생물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이란 0.001~5mm의 합성수지(Synthetic Polymer)를 일컫는데, 그중 합성단계에서 작은 크기로 생산된 것은 1차 미세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중 혹은 폐기된 이후 풍화되어 만들어진 것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이토록 작은 파편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안으로 유입되고, 만조 시 수면으로 떠 올라 해수 중에 서식하는 여러 생물이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플라스틱에 첨가된 화학물질이 생물의 소화기에 독성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성장 저하 및 뇌 손상으로 인한 자폐증 증상으로 자연환경 적응력을 퇴화시킨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한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조사에 의하면, 경남 거제 앞바다에선 1㎡당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21만 개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평균의 여덟 배 이상을 웃도는 수치다. 이듬해 거제 앞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내장에서선 상당수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그 뜻은 우리 또한 수산물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세 플라스틱을 체내에 축적하게 된다는 말이다.

필환경시대, 목조 용품으로 실천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심각한 플라스틱 환경오염으로부터 삶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뤘나할 수 있을까. 흔히, 환경운동이라 하면 급진적인 환경운동가가 되거나 플라스틱 생산과 유통과정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거창하고 즉효적인 대안들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상의 습관이 쌓여 인생이 되듯, 기본적인 생활에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로 웨이스트 시대를 맞은 지금, 친환경 목조 용품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낭비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소비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삶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다.

필(必)환경 시대에 이른 만큼 개인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다. 흔히, 친환경이라 하면 번거롭고 불편하며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루 치부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소비의 범주를 물품을 사서 버리는 것까지를 과정으로 계산하면 더욱 간편한 축에 속한다. 오히려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욱 저렴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용품은 생각보다 많다. 플라스틱 대신 합판 도마나 대나무 칫솔과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식품 보관 용기를 목조 제품으로 바꾼다거나 장을 보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사용 종이를 가져가 물품을 직접 싸서 오는 등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 및 잡지와 같은 각종 매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하여 우리 생활에 적합한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쓰레기 없는 일상을 더욱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의 유행은 기업인 생산자의 입장에서든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달이 어느 나라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손쉬운 포장 시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먼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종이 빨대 사용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배달 전문 업체는 ‘플라스틱 용기 미사용’고 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비닐을 대신하여 재생 종이 포장지들, 스티로폼 완충재가 아닌 두루마리 용지를 활용하여 제품 손상을 방지하는 등, 플라스틱을 적게 소비하는 제품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연에서 자연으로 순환하고 자연과 일상이 공생하며, 훼손이 아닌 회복을, 그렇게 지속 가능한 삶을 소중히 여기려는 움직임이 점차 번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친환경 목조 용품이 자리하고 있다. 더욱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버리는 삶에서 벗어나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삶, 바로 친환경 별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검증받은 친환경 제품 제대로 알기 !

다양한 친환경 인증 마크가 새겨진 제품이 유행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인지,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공신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준비해보았다. 제대로 알아두면 좋은 국내 · 외 친환경 인증 마크!

친환경 마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환경 정보의 전달 방식에 따라 총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공인기관이 부여하는 인증마크

제품의 생산,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평가하여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 받아 부착되는 로고다. 공인기관이 인증한 만큼 신뢰성도 보장된다.



제품의 생산자가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부착하는 문구 및 로고

제조사가 직접 친환경 제품임을 주장하는 라벨이므로, 친환경 인증에 적합함을 명확하게 기준에 따라 제시하여야만 한다.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된 수치로 제시하여, 제품에 부착된 로고를 일반적인 생활 가전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명확한 수치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필환경 시대, 알아두면 좋은 해외 주요 친환경 인증 마크

친환경이 필환경의 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각국에 사용되는 친환경 인증 마크도 알아두면 좋다.

유통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제품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요즘, 꼼꼼하게 알아두고 현명한 소비를 생활화 한다면 세상은 더욱 푸르게 변하지 않을까.



FSC 인증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인증 로고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부여된다.



Green Seal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Green Seal에서 주관하는 인증으로서 환경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임을 보증하는 라벨이다. 일반 생활 용품은 물론, 인쇄, 건축제품까지 다양한 영역에 부착될 수 있다.



EU ECO라벨

유럽연합이 협의하여 검증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로, 유럽위원회(C)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유럽 전체에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친환경에 부합한지 전체적인 영역에서 고루 검토해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선정된 환경 기준에 따라 상위 20%에 속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남해 끝에서 섬애와 마주치다

남해섬애약쑥영농조합법인
배원열 대표



쑥의 맛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쓰다면 쓰고, 고소하다면 고소하기도, 또 달기도 한 쑥은 그저 쑥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가 없어 보인다. 배원열 대표가 쑥에 반하게 된 이유 역시도 순전히 이 향 때문이었다. 그윽하게 퍼지는 맑은 향은 쑥의 초록 빛을 닮아 싱그러웠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우연히 만나 첫 눈에 반해 쑥과 함께 한 지 여인 30여년. 그의 쑥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섬애’ 약쑥과 처음 인연이 닿은 곳은 남해군 서면 서상리 인근 해안이었다. 당시, 배원열 대표는 기업으로 내려오던 선향 사업의 원료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차였는데, 그때 우연히 ‘섬애’를 만났다. 부드러운 박하향이 나고 잎도 넓은데다가, 줄기가 흰 게 아무래도 일반 쑥과는 다른 구석이 있었다. 그는 몇 뿌리를 채취해 가져와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10여 년을 재배와 선발 과정을 거듭 되풀이하며 최상의 품질을 모아 육성하길 수차례, 경상남도기술원과의 R&D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12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 ‘섬애’로 출원하게 된다.

“선향의 원료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이처럼 다녔어요. 그러던 차에 인연이 닿은 것이 바로 이 ‘섬애’였습니다. 우선 잎 모양이 크고 넓어 눈에 잘 띄었고, 잔 솜털이 촘촘히 나 있어 햇빛을 머금으면 표면에 은은한 은빛이 도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향은 또 어떻고요. 부드러운 박하향이 솔솔 나는 것이 이게 내가 알던 쑥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품종으로 출원한 ‘섬애’ 약쑥을, 배원열 대표는 남해 지역 농가와 나누어 계약재배를 해 보급하기로 마음먹는다. 고향에서 힘들게 마늘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거둬 먹이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비교적 손쉬운 재배가 가능한 ‘섬애’로 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더욱이,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남해는 고품질의 ‘섬애’ 약쑥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모든 음식은 자연에서 나므로, 분명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간에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 처음 ‘섬애’ 약쑥을 계약재배를 하여 농가에 보급했을 당시, 지역 농가에서는 일반적인 들쑥과 ‘섬애’를 혼동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빨리 재배하고 싶은





01

마음에, 갖가지 미생물제를 투여하여 오히려 생장하지 못하고 죽는 일
이 있는가 하면, 적절한 수확 시기를 놓쳐 다른 들쑥이 혼입되어 변이
가 생기기도 하는 등 솔한 문제점을 겪었다.

“일반적인 쑥과 다르듯 재배 환경 및 방식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
니다. 지나친 영양제나 농약들은 생장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재배지를
3년에 한 번씩 갈아엎어 약해진 종근의 생명력을 강화 시켜주어야 하
는 등,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무어래도 ‘섬애’ 약쑥을 재
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친환경적으로, 잡초만 제거해주는 방식이
제일 잘 자랍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르죠.”

이러한 배원열 대표의 정성어린 관심과 도움으로, 2010년 20여 곳에
불과하던 재배 농가 수는 2015년에 이르러 78곳으로 크게 성장했다.
남해군 광두마을, 용강마을, 왕지마을 등, 여러 농가에 작목반을 구성
하여, 현재는 남해 지역의 대표 소득 작물로 인정받으며 거듭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남해 지역 농가 분들이 믿어준 만큼, 배원열 대표는 연구에 더욱 박
차를 가했다. 농가의 정성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였다. 이토록 좋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건, 전적인 농가의 도움 덕분

이었다. 그렇게 ‘남해약쑥연구회’를 설립, 타 품종과의 성분을 비교·
분석하고, 독성 및 유효 물질 연구 및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시
장 확대에 나섰다. 이후, 남해마늘연구소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과
의 연계를 통한 공동 연구 및 협력으로 기능성이 향상된 제품을 선보
이는 것은 물론, ‘섬애’ 약쑥을 활용한 가공품 제조를 위해 GAP 인증
식품제조공장을 완공하면서 가공, 포장, 건조 및 열 숙성 등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섬애’가 일반적인 다른 쑥과 차별점을 갖는 부분은 바로 독성이 없다
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쑥에는 투존이나 리노넨과 같은 독성물질이 존
재하는데 반해, ‘섬애’ 약쑥에는 그러한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
죠. 그래서 다 자란 쑥의 경우에는 식용 섭취 하지 않는다고 『동의보
감』에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의 쑥은 성쑥이 되면 독성이 생기는 탓에 무당벌레와 같은 곤충
이 서식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럽에서는 식
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섭취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 하지만, ‘섬
애’ 약쑥은 독성이 없어 다 자란 성쑥이 되어서도 섭취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생장 과정에서 곤충들이 발견되지 않는 일반 들쑥에 비해

성쑥이 되어도 갖가지 곤충들이 서식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그 만큼, 안전하고 또 무해하다는 것을 자연이 입증하는 셈이다. 어
쩌면, ‘섬애’ 약쑥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도 식재료로 널리
사랑받는 날이 머지 않을지도 모른다.

‘섬애’ 약쑥이 무해하고,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는 만큼, 제품개발에 있
어서도 그 활용도가 넓다. ‘섬애’ 약쑥을 활용한 음료나 음식은 물론
이거니와 코스메틱 제품, 의약품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그 덕
에 가공제품 제조로 지역 주민과 장애인 등 500여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연간 40억원 이상의 수출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 남해의 청정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고품질의 ‘섬애’, 그리
고 온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기르는 사람들. 이처럼, 아름다운 공생
의 관계가 어디있을까.

“이토록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건, 남해 자연의 몫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농가분들이 쏟는 수고로움이 큼니다. 저희 ‘섬애’ 약쑥이 모
든 소비자들에게 고루 사랑받을 수 있는 공공적인 이유는 바로 농가
분들의 정성 덕이죠.”

어쩌다 남해 끝, 해안에서 만난 쑥과 인연을 시작으로 ‘섬애’에 이르까
지.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으나, 그 길 곳곳에는 힘들게 자식들을
거뒀 먹이느라 고생을 마다 않던 어머니의 정성처럼, 남해 농가분들
의 고생의 흔적이 담겨져 있다고 배원열 대표는 말한다. ‘섬애’ 약쑥과
함께 소비자가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의 작은 소망
에는 남해 농가 지역민들의 정성이 보답받길 바라는 참된 마음도 덩
달아 섞여 있었다. 🌿

●
‘섬애’가 이토록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건, 남해 자연의
몫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농가 분들이
쏟는 수고로움이 큼니다.

저희 ‘섬애’ 약쑥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고루 사랑받을 수 있는 공공적인 이유는
바로 농가분들의 정성 덕이죠.



- 01 지역 주요 소득 작물로 부상하며
남해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
- 02 ‘섬애’는 특용작물 분야에서 최초로
우수품종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 03 배원열 대표는 ‘섬애’가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지역 농가의 정성
덕분이라고 말한다.



02



03



봄이 되니 나른하고 입맛이 돈다.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듯, 산이며 들이며 온통 초록빛에 가득 물들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봄철에 맞는 나물을 먹고 기운을 돋우는 일이다.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서야 한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만 기분이 든다.

봄이면 찾아오는 찰나의 맛 두릅과 소고기



비로소 완전한 봄이다. 무른 땅에서 새순이 자라며 봄의 맛이 올라온다. 사람이 각 계절에 맞는 옷을 입듯, 자연도 각 계절의 순환에 맞추어 잎을 틔우고 번식하고, 사람들의 입맛 또한 변한다.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 몸을 자연의 주기에 맞게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봄에 막 자라난 향긋한 풍미를 자랑하는 새순, 두릅과 소고기로 도시락을 꾸려 느긋하게 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글/진행 매거진 숲 편집실

봄이 되니 나른하고 입맛이 돈다.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듯, 산이며 들이며 온통 초록빛에 가득 물들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봄철에 맞는 나물을 먹고 기운을 돋우는 일이다.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서야 한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만 기분이 든다. 그럴 때, 두릅은 봄을 소화시키기에 제격인 봄철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으로, 독특한 향이 나는 산나물이다. 다년생 식물로서 비교적 메마른 땅에서도 무사히 잘 자라는 편이며, 특히 줄기와 가지가 많다. 두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불리는데, 땅두릅은 4~5월 경 돋아나는 새순을 땅을 파서 잘라낸 것을 말하고, 나무두릅은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뜻한다. 땅두릅의 경우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편이며, 나무두릅은 강원에도에서만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두릅을 즐기려면 봄에 막 자란 새순을 맛보는 것이 좋다. 흔히, 봄두릅은 금두릅이라고도 불리는데, 새순의 연한 줄기를 먹어야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그 향긋한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특히, 다량의 비타민A와 비타민B,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도 탁월하다. 이만하면, 봄에 먹지 않는 게 손해일 정도이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좋은 두릅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우선 순을 살펴보아야 한다. 두릅순이 연하고 꺾어야 식감과 향이 풍부하고, 잎은 활짝 피지 않은 것이어야 좋다. 더불어, 겹질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은 것, 진한 녹색을 띠고 향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

두릅과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소고기가 있다.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함께 두릅에 함유된 다량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므로 봄철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자연이 내어준 두릅과 함께 올 봄을 든든하게 소화시켜보자.

#1
Recipe

두릅 소고기
초밥

재료 및 분량 2인

두릅 10뿌리
쌀 2컵(400ml)
스테이크용 소고기 250g
소금 약간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미림 1큰술
와사비 약간

배합식초 재료

식초 50ml
설탕 1.5큰술
소금 1작은술

만드는 법

- [1] 소금을 약간 넣고 물을 끓인 후, 두릅을 살짝 데친다.
- [2] 초밥은 뜬들인 밥에 배합식초를 넣고 주걱으로 잘 섞어준다.
- [3] 소고기는 포뜨기로 자르고 밀간용 소금을 약간 뿌린 후, 후라이팬에 기름을 돌려 굽는다.
- [4] 소고기가 반쯤 익으면 불을 줄이고, 설탕 1큰술, 간장 2큰술, 미림 1큰술을 넣고 졸인다.
- [5] 초밥을 틀에 맞추어 모양을 잡아 준다.
- [6] 5 위에 와사비를 얹고 양념된 소고기를 올린다.
- [7] 6 위에 데친 두릅을 올린다.



#2
Recipe

두릅 소고기
샐러드

재료 및 분량 2인

두릅 6뿌리
소고기 100g
소금 · 후추 약간
양상추 3장
두부 1/4모
방울토마토 6개

드레싱 재료

간장 2큰술
식초 1.5큰술
포도씨 오일 3큰술
참기름 0.5작은술
다진 마늘 한쪽
깨 약간

만드는 법

- [1] 끓는 물에 두릅을 살짝 데친다.
- [2] 소고기에 소금 · 후추 밀간을 한 후, 후라이팬에 굽는다.
- [3] 두부를 각둑설기로 썰고 양상추와 방울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4] 드레싱은 준비한 재료를 넣고 섞은 후, 포도씨를 마지막에 살짝 두른다.
- [5] 준비된 두릅, 구운 소고기, 채소를 접시에 넣고 드레싱을 뿌려 잘 버무려준다.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다

라벤더

하루하루 일에 치여 지쳐가는 현대인들의 마음과 몸을 달래줄 반려식물은 없을까.

외출하기에는 번거롭고, 허전한 실내 공간은 사뭇 외롭게 느껴질 때, 나를 위로해주는 식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몸과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 있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고루 사용되어 허브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쓰임새도 다양하고,

수려한 외양 덕에 실내 공간에 화사함을 가득 안겨주는 것은 물론, 피로를 말끔히 게워내 줄 허브, 바로 라벤더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번식	종자
개화시기	6월~9월
학명	Lavandula angustifolia Mill
꽃말	우정절, 풍부한 향기, 기대, 대답해주세요
크기	높이 30~60m
과명	꿀풀과

라벤더는 익히 스트레스 완화 효능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허브다. 그 덕에 천연 방향제로도 많이 쓰여옴은 물론, 추위에 내성도 있고, 햇빛이 무리 없이 잘 들는 곳이라면 잘 자라는 편이라 많은 이들이 인테리어 반려식물로서 애용해왔다. 라벤더의 특징은 무엇보다 진한 향에 있다. 머리맡에 두고 잘 경우, 몸에 얹힌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 해주며,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보랏빛 꽃잎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실내 포인트가 될 만한 인테리어 식물로서 제격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효능이 좋은 라벤더를 제대로 알고 길러봄으로써, 하루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자.

라벤더를 키울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을 뽑자면 바로 습도조절이다. 라벤더는 물을 자주 줄 경우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 줄기와 잎에 수분이 올라가지 못해 말라 죽는 것이다. 특히 라벤더는 여름철 장마기가 없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게 좋다. 물주기는 겉흙이 아닌 속흙까지 말랐을 때 흠뻑 주어야 하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손가락을 흙 안으로 넣어 확인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라벤더 잎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물과 닿으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잎에는 물이 묻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 생활에 물주기를 가끔 깜빡해 식물 기르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키우기가 수월할 수도 있겠다. 보통 비옥한 땅에서 식물을 길러야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겠으나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라벤더에게는 예외다. 물 빠짐이 좋은 모래땅이나 다소 자갈이 혼합되어 있고 비옥하지 않은 흙에서 잘 자란다. 건조한 석회질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쪽의 막을 제거한 계란 껍질을 잘게 부셔서 넣어주면 키우기 적합한 토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듯이 라벤더의 잎도 사이사이 거리가 있어야 통풍이 잘되어 진딧물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자란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누렇게 변한 잎이나 뿌리와 가까이 있는 잎을 따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잘 키워진 잎을 따는 게 아깝긴 할지라도 식물의 성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니 주저하지 말자.

햇빛은 식물 기르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라벤더는 특히 꽃 봉오리를 만드는 3월부터는 햇빛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햇빛이 부족한 실내나 그늘진 곳에서는 잎이 처지며 시들해지므로, 최대한 햇빛이 고루 잘 드는 곳에서 키워야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하게 자란다. 겨우내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랐다면 햇빛을 직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실외에 내놓으면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다. 단, 별이 강한 날에는 물을 흠뻑 준 상태로 내놓는 것이 관건이다.

햇빛, 통풍, 습기만 잘 관리해 준다면 라벤더는 짙은 향과 효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음이온 발생량 또한 우수하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포름알데히드 제거량이 높아 기능성 식물로 좋으므로 침실 선반 혹은 실내 창가에 놓고 기른다면 라벤더의 향이 주는 심신안정의 효과와 공기 정화를 같이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



삶이 시작되는 산 내가 살아야 할 땅

풍수지리를 통해 알아보는 산촌 지리

글 매거진 숲 편집실

귀산을 택한 많은 이들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치유다. 분주한 듯 여유로운 산촌의 일상을 누리고, 텃밭을 일구어 계절이 내어주는 음식을 즐기면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삶을 실현하려는 것. 때문에, 진정한 산촌에서의 삶은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점에서 풍수지리란 자연적 지형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목이 좋은 터가 아닌, 자연과 삶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당, 흔히 풍수지리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일컫는 말이다. 인류의 삶은 땅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필수적인 생존 여건인 ‘의·식·주’라는 조건 역시도 땅 위에서 시작되고 실현된다. 이렇듯 땅과 인류는 불가분한 관계로 맺어 있다. 서로에게 빛지고, 또 보답하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풍수지리란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온 자연적 지형에 관한 탐구에 가깝다.

그렇다면, 자연과 밀접한 산촌에서 고려해야할 풍수 요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분지지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며, 산과 물의 형세, 방위를 계산하여 입지가 좋아야 한다. 풍수(風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풍수지리의 원리는 산과 물이 기본이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며, 반대로 물은 늘 끊임없이 움직이며 운동하는 상태이므로 둘의 조화롭게 배합된 공간에서 정기가 모인다고 말한다.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가 그렇다. 뒤편에 자리한 산이 찬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자리한 물줄기가 농업 용수로서 이용이 간편한 지형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지세는 농경사회에서 집 짓고 살기 좋은 곳으로 꼽혔다.

산촌에서의 삶을 시작하며 임산작물을 기른다면, 그에 맞는 지리적 특성을 파악 및 설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디서 살 것인가를 우선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백두대간과 같은 산지는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량, 바람 분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온은 해발 고도에 따라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며, 산지는 풍향을, 강수는 산지의 바람받이 사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규모가 작은 산일지라도, 크기에 관계 없이 주변에 산지가 분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풍향, 풍속, 강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산촌에서 산이 의미하는 바는 마을

형성의 근원이자 삶의 형태를 결정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겨울철에는 호남지방에선 강수량이 많고, 백두대간을 넘어서는 영남지방에서 강수량이 적다. 여름의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태풍의 진로는 굽어 남부 지방을 통과하기에 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어떠한 산줄기가 어디로 뻗어 나가느냐에 따라 강수와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연환경도 달라져 서식하는 수종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재배하는 작물 및 생산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백두대간을 넘어 동쪽에 위치한 지형에서는 봄철에 무척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의 위험도 있는 편이고, 큰 산지에는 저지대와 달리 지형성 강수량이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는 계절적 환경 및 산이 국토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주거 및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 역시 산지에 입각하여 기후가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풍수지리가 비단 비과학적으로 치부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자연의 짜임새를 읽고 산과 질서, 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 경관이 유려하고, 자연 재해가 덜 일어나며, 생필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논리 체계로 통하여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귀산을 하는 이들이라면, 꼭 지형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명당을 찾아야 한다.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르므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 역시 각 자리마다 그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호두나무의 경우에는 배수가 양호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유기질이 많은 토양, 즉 땅의 보습력이 높고, 자갈 등이 적당히 섞여 있으며, 토심이 1.5m 이상이 되는 곳이 좋다는 뜻이다. 기

온을 고려하자면, 호두나무는 내한성이 약하고, 또한 기온이 높을 시 병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12℃의 연평균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좋다. 햇빛도 많이 필요한 극양수여서 남향이나 남동향에서 재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경북 김천이 호두나무 재배 적지로 꼽히는 이유다.

이처럼, 성공적인 귀산촌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산을 알아야 한다. 자연으로 들어가 자연을 닮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만큼, 산촌의 환경 여건을 꼼꼼하고 신중히 따져보아야만 경제적 여유는 물론이고 심적 안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 내가 살아야 할 땅으로서 산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조화로운 삶을 향유해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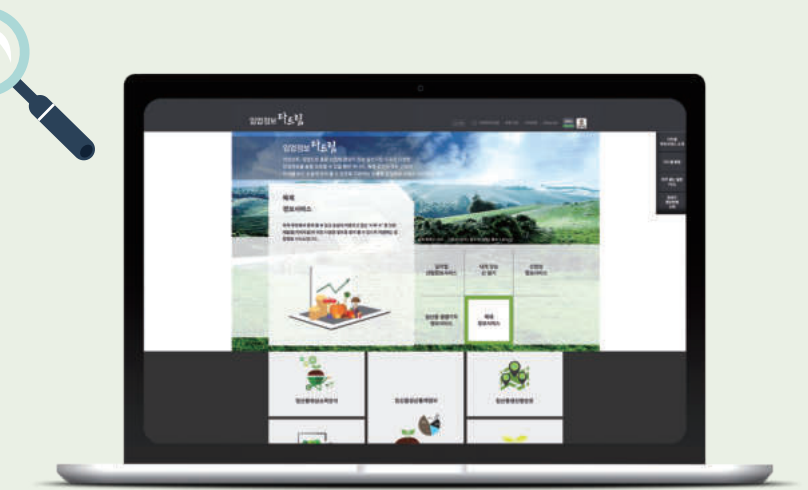


내게 맞는 산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

임산물 재배 적지를 고르기란 워낙 까다롭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산림정보를 분석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여기, 임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특정 조건에 맞는 산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성공적인 임업 비결, 한 번 들여다보자.

임업정보 다드림 gis.kofpi.or.kr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임업정보 다드림(<https://gis.kofpi.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목별 원하는 임업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등 쉽게 활용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임업정보 다드림’ 서비스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개인산주, 임업인은 물론 산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림 정보를 필지 단위로 편하게 통합 조회 가능하다.



산양삼 정보 서비스

산양삼, 안심하고 먹자.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임업진흥원에서는 철저한 산양삼 이력관리를 통해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내게 맞는 산 찾기

내게 적합한 산을 찾기가 어렵다면, ‘내게 맞는 산 찾기’를 이용해보자. 지역별, 수종별, 목질별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준다.



임산물 생생가격 정보서비스

힘들게 일군 임산물, 제 값 주고 공정하게 수익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34곳의 도매시장을 기반으로 84개의 임산물 참고 기준 가격을 제공하고 있으니 초보 임산업 생산자라면 꼭 참고하자.



임업 컨설팅 서비스

임업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고 싶다면, 맞춤형 임업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목재 정보 서비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손쉽게 이용되는 나무, 목재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나무로 만든 목재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보자.



그간 소홀했던 나를 보살피다

잣향기푸른숲

봄이 봄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서서히 지구가 자신의 체온을 높일 즈음,
점차 더위에 몸이 흐려지는 기분이 든다. 체력은 조금씩 바닥나고,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생기를 잃어간다. 그래도, 괜찮다. 아무리 몸이 축났다면들,
기운이 다 소진되었다한들 우리에게겐 숲이 있지 않던가. 잣향기푸른숲으로
떠난 것은 전부 그러한 이유에서다. 숲으로 들어가 한적하게 걷고,
자주 웃으면서 그간 소홀했던 마음과 몸을 보살피기 위함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01

멀리서 바라본 숲은 언뜻 보기에도 그 규모가 상당해보였다. 일제히 하늘을 향해 갈채를 하듯, 잣나무가 곧게 뻗어 있는데, 눈에 다 담기에 벅찰 정도였다. 이곳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잣나무가 터를 잡고 산 지가 어언 80년에 이른다고 하니, 결코 과장이 아니다. 경기도 내 산림휴양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피톤치드 분석 결과, 연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치유의 숲인 셈이다.

숲에 들어서자 수많은 길 다발이 사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길은 서로 꼬이고 얹혀 숲과 숲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키며, 숲의 속내를 조심스럽게 파고든다. 그 덕에, 코스의 이름도 제각각이다. 휠체어·유모차도 이용 가능한 평지길, 한가롭게 거닐기에 좋은 산책길이나 잣향기푸른숲의 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둘레길, 끝으로 잣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온 몸으로 쉴 수 있는 피톤치드 길. 이렇게 여러 갈래로 뻗은 길들은 숲을 나누고 엮으면서, 등산객들의 걸음을 이끌고, 수시로 눈길을 붙들게 만든다. 바깥에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오직 내부에서만 오롯이 드러나는 잣향기푸른숲의 진면목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숲은 그 보폭만큼 무성한 앞을 드리우며 자신을 내비추어 보여준다.

●
잣나무 숲을 한적하게
거닐면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나를 돌보는 것.
이제껏 소홀히 여겨왔던
내 마음과 몸에게
잘해주는 것.

숲의 초입에서부터 시작된 잣나무는 물결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졌다. 해의 기울기에 따라, 숲에 그늘을 드리우며 각기 다른 인상을 만들어 냈다. 이전에도 마주치고, 익히 보아온 모습인데도, 매번 처음본 듯 새롭고 다채로웠다. 몸에 늘 상 들어차있던 긴장감도 점차 열리는 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깊이 응어리져 있던 피로가 한 꺼풀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모처럼, 내 몸의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데에 놀랐고, 그간 이토록 무딘 상태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란다. 숲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에 의해 닳아 왔다. 숲이 아니면, 그저 지나쳤을 지도 모르는 사실들을 숲에서 깨닫고, 되찾으면서 다시 살아갈 기운을 얻는다. 잣나무 숲을 한적하게 거닐면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나를 돌보는 것. 이제껏 소홀히 여겨왔던 내 마음과 몸에게 잘해주는 것.

숲을 거닐며 마음에 쌓인 근심을 털다

산자락에 찢줄처럼 뻗은 물줄기 사이로 출렁다리 하나가 나 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휘어 있는 출렁다리에 발을 뻗으니 몸이 쑥 내려간다. 힘이 실린 발의 무게만큼 몸이 오르내린다. 몸을 훌훌 털고 가라는

뜻일까. 적당한 반동에 몸을 실으니 걸음이 한결 가볍다. 어깨에 쌓인 근심과 마음에 얹힌 짐들을 이 출렁다리에서 잠시 털어놓는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든 걱정거리가 저 바닥 아래로 가라앉기를. 이대로 흠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본다. 다리를 건너고, 숲에 난 길을 따라 걷기를 반복하다보면 어느 샌가 작은 마을에 닿는다. 바로 화전민 마을이다. 1970여년 즈음 이곳 축령산에서 실제로 터를 잡고 살던 화전민들의 터와 너와집, 귀틀집과 숯가마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가옥이다. 잠시나마,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의 삶을 가늠해보려 하지만, 쉬이 와 닿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 위로,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을 덧대며 겨우 상상하기를 반복하다 이내 그만둔다. 실감은 나지 않지만, 이 잣나무 숲에 둘러싸여 생활했던 이들의 삶은 초록을 닮아 여유롭고 푸근하지 않았을까. 내가 잣나무 숲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졌듯이, 이곳에 살림을 차린 사람들은 한없이 인자하되 견고한 숲과 닮아 있지 않았을까.

화전민 숲을 나서자 곧 힐링센터에 다다른다. 숲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은 산림치유 및 치유의 숲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센터이자 동시에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상담소다. 체성분 분석을

01 실제로 거주하던 화전민의 삶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다.

02 잣향기푸른숲은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분포하는 국내 최대 잣나무 서식지다.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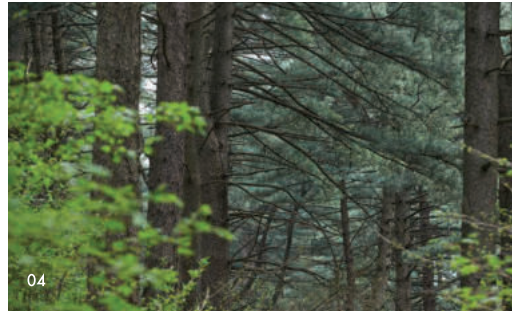
비롯해,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하고 혈압 등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고, 실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한 심신 치유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짧지 않은 숲길을 마저 걸으려면, 이곳에 잠시 쉬어가도 좋을 듯 싶다. 번잡한 도심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다가 보면,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쉰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한적하게 보내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맞춰가는 일이기도 하다. 내 생활과 리듬의 주기를 다시 조절해보는 일이다. 잠시 힐링센터에 들러 한 숨 돌렸겠다 발에 다시 힘이 들어간다. 이제 다시 숲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수령이 80년에 가까운 잣나무들이 길마다 늘어져 있으니, 청량하고 맑은 숲 내음이 수시로 가득 밀려온다. 숨을 쉴 때마다 마치 몸을 갈아입는 듯하다. 경기도 내 산림 휴양지 중 피톤치드 연평균농도가 제일 높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이 난다. 꽤 오랜 시간을 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부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도 맛에 차이가 나듯, 숲도, 공기도 확실히 맛이 다르다. 더구나, 잣나무의 잎이 넓지 않아 적당히 걸으면서도 적당한 별을 쬔 수 있어 더욱 좋다. 그야말로 온 몸으로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숲이다.

속삭이듯 말을 거는 숲

앞으로 난 길을 따라 거뜰 걸었다. 걸으면서도 걷는 줄도 모르고, 훌리듯 발 박자를 이어갔다. 이토록 오랜 시간 걸었던 적이 있던가 돌이켜 보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요새 들어 몸이 굳은 양 좀처럼 개운치 못한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저 멀리 빛이 아른대는 게 눈에 보인다. 다름 아닌 물빛이다. 가까이서 보니, 사방댐이 잣나무에 둘러싸여 다소곳이 놓여있다. 축령산에 실처럼 이어진 물줄기는 이 사방댐을 타고 흐른다. 잔잔한 수면 위로 잣나무 숲이 일렁이며 비치다가도, 바람이 불자 금세 흩어진다. 그렇게 바람은 제 몸을 틀어 숲을 더듬고, 물 표면에 일일이 제 흔적을 새겨 넣는다. 이따금씩 새 울음소리도 덩달아 싹고 울 적이면 눈을 감아 소리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숨을 크게 들이키기도 한다. 마치 숲이 내게 속삭이듯 말을 걸며 위로를 건네는 것 같다.

한 동안 정경을 훑다 이 장면을 한 눈에 담고 싶어 전망대에 올랐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사방댐은 탁 트인 잣나무 숲을 향해 제 몸을 드러내고 누워 있는 듯 했다. 한 줌의 초록과 머리 위로 드리워지는



04

03 사방댐에서 바라본 잣나무림은 한적하고 고요하며 평화롭다.

04 바람이 불 때마다 잣나무 잎 사이로 적당히 내리쬐는 별은 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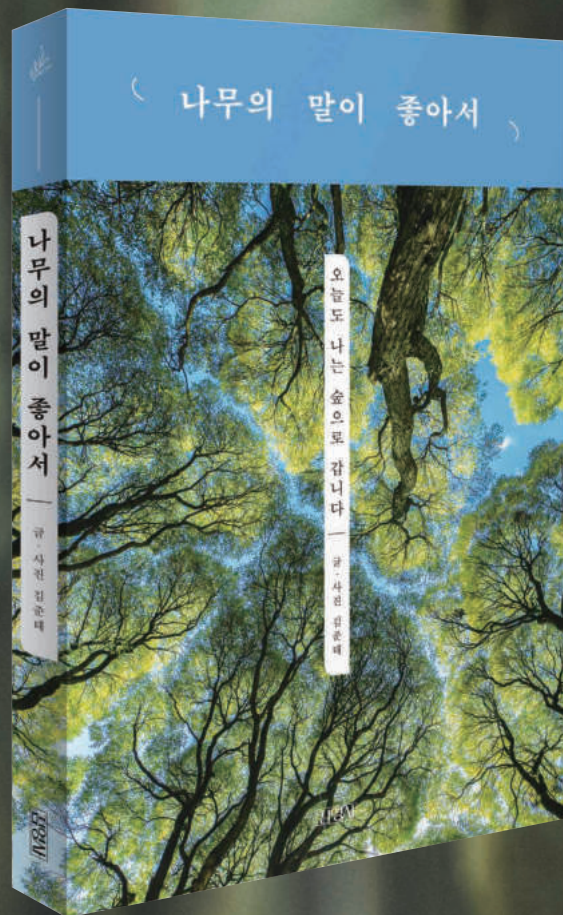
05 잣나무 사이를 거닐며 피톤치드를 쉼다보면 몸과 마음이 한결 안정된다.

하늘빛이 적당히 풀어져 사방댐은 자연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곳엔 잡다한 소음도 없고, 밤낮없이 사방을 비추는 눈부신 조명도 없다. 자연의 맨얼굴. 한결같이 솔직한 자연의 모습이다.

내려오는 길에는 피톤치드 숲을 따라 걸었다. 잣나무의 숲 내음을 조금이라도 더 맡고 싶어서였다. 그토록 잣나무 숲을 걸어왔음에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숲이 내 집처럼 편안했던 까닭일까. 아니면 미처 숲에서 돌보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일까. 뭐가 됐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도심일지라도, 결국엔 다시 되돌아가야만 한다. 남은 숲을 아끼듯 마저 걸어본다. 이 시간들로, 앞으로의 하루를, 일상과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면 착각일까.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이미 충분히 숲에 흠뻑 취해 뒹든 반아낼 있을 것만 같다. 무엇보다 먹지 않았음에도 내 몸은 배부른 듯 충만해져 있고, 마음에 얹힌 온갖 짐들을 전부 비워냈으므로, 당분간은 관촬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삶을 꺼안을 수 있을 것이다.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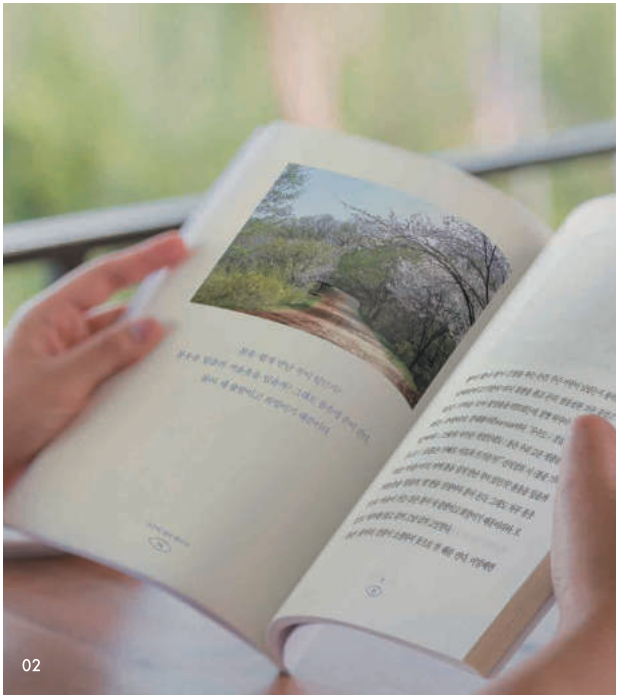
나무의 말이 좋아서

		숲	으	로		간	다
오	늘	도			나	는	

저자 김준태 출판사 김영사

여기, 나무의 말을 들으러 숲을 찾는 사람이 있다. 단지 숲의 언어가 말이 아닐 뿐, 저자는 나무와 어울리면서 몸소 소통하고 깨닫는다. 나무가 서식하는 생명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계절을 대하는 태도,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 하나 하나가 그에게 존재론적 문답의 과정이었다. 나무가 전하는 답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또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나'를 찾고 '나'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제, 우리가 숲으로 들어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나무의 말을 경청해 볼 차례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01 저자는 숲길을 가만히 걷다보면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이 있다고 말한다.

02 이 책은 숲에서 몸소 깨달은 단상들을 예리한 언어로 적어내려 간 한 편의 숲 번역서다.

03 나무의 말을 듣기 위해선, 들으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
숲에도 계절이 있고,
변화하는 삶의 양식이 있다.
일상에 가려진 소중한 순간들처럼,
숲에도 저 마다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특별한 찰나가 존재한다.

나무의 말을 들으러 숲을 찾다

유구한 시간동안 나무는 솔하게 말을 걸어왔다. 계절이면, 계절이 도 착했다고 제 모습을 바꾸어 알리고, 숲에 터를 잡고 서식하는 생물들 을 통해 공생을 가르쳐 주었으며, 힘겹게 맺은 열매를 통해 음식의 귀 중함을 일러줬다. 이 모두 숲길을 가만히 걷다보면 깨닫게 되는 삶의 논리이자 값진 지혜다. 우리는 숲을, 그리고 산을 정복하려는 데에만 노력해왔다. 하지만, 다 전해지지 못한 숲의 말들이 저 초록 안에 우 거져있다. '나무의 말이 좋아서'는 저자가 숲을 거닐고 어울리면서 몸 소 듣고 깨달은 단상들을 정갈하고 예리한 언어로 적어내려 간 한 편 의 숲 번역서다.

춘하추동(春夏秋冬), 각 계절은 해마다 찾아들고, 우리의 삶은 이에 따 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의복은 점차 얇아지다 이내 두터워 지고, 철에 맞는 음식으로 식욕을 돋우고 채우며, 누리는 일상 역시 조금씩 달라 진다. 이렇듯, 계절은 우주가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리이자 동시 에 삶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숲도 비슷하다. 숲에도 계절이 있고, 변화하는 삶의 양식이 있다. 일상에 가려진 소중한 순간 들처럼, 숲에도 저 마다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특별한 찰나가 존재한 다. 저자는 계절마다 혹은 심경에 따라 들리며 숲의 하루를 온몸으로 보고 듣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쉽게 갈 수는 있지만, 쉬이 보이지 않던 숲의 얼굴과 마주친다. 그렇게 숲으로부터 삶을 전해 듣는다. 책을 펼치는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봄'이다. 봄을 시 작으로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에 다다른다. 인간의 생애처럼, 나무 의 세월도 시간이 자남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저자는 봄으로 책의 첫 문을 연다. 무채색의 단조로움을 벗고 막 초록을 머금 은 숲 나무들로부터 생동의 소리를 듣고, 꽃 뭉치를 피우는 나무의 수 고로움을 발견한다.

봄은 단순히 봄이 아니다. 봄이 그저 화사한 봄날임을 뜻하는 건 모 두 인간의 체계에 속하는 말이다. 말은 뜻을 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 만, 가끔 말들은 의미를 단숨에 요약시키기도 한다. 저자에게 봄은 그 런 말이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말이면서, 꽃이 완전한 계절을 의미하기 도 하지만 동시에 제 살갗을 찢는 고통을 견뎌온 인내의 시간을 나타 내기도 한다. 저자는 봄이라는 말을 면밀히 들추며, 계절과 숲의 의미 를 다시금 떠올려본다. 나아가 그 의미를 묻고,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 면, 봄에는 왜 꽃을 틔울까. 저자는 봄에 꽃이 틔우고 지는 과정을 바로 삶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저 감상에 대상으 로만 여겼던 꽃을, 나무의 처지에서 치열한 삶의 순환 과정으로 바라 본다. 나무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묻고 또 물으면서 말 이면에 가려진 속뜻을 이해하는 일이다. 말의 안감을 만져보는 일이다.

나무의 말에서 삶이 트다

저자는 나무의 말을 가만히 주워들으면서, 스스로를, 주위의 환경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나무를 거울삼아 자신의 삶을 비추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 여름 팔월 이면, 찰넝쿨이 온 산하를 휘감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끝도 없이 성장하는, 요란하다 싶을 정도로 남의 영토를 빼앗 아 성장하는 찰넝쿨을 보면서 저자는 삶의 여유를 떠올린다. 침과 닭 은 덩굴 식물 중에는 등(藤)나무가 있는데, 침이 왼쪽으로 나무를 올라 감는 반면, 이 등 나무는 오른쪽을 휘감고 올라선다. 이 둘이 한 나무 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 둘이 만나 서로 뒤엉키는 모습은 가히 상 상하기 싫을 정도로 혼잡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을, 침과 등의 전쟁, 갈등(葛藤)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 덩굴처럼 홀 로 지만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가 이루어온 것들의 절반은 바로 내 옆에 있어준 감사한 이들 덕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숲을 뒤덮은 찰넝쿨을 통하여 존중과 조화의 참의미를 돌아본다.

비로소 계절의 끝, 녹음을 다 벗어내고 헛벗은 겨울 숲에서도 나무의 말은 이어진다. 다사다난한 한 해, 숲은 서서히 잎을 내려놓기 시작하 며 속을 비워낸다. 그토록 차올랐던 모든 초록과 소란들을 떨어낸다. 채움이 있으면, 언젠가 비움이 있는 법이다. 채워야 할 시기와 비워야 할 때를, 숲은 이토록 잘 알고 있다. 경이로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종종 덜어내야 할 것들과 끊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나. 버려야 할 재물이 그렇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 월이 그러며, 심지어 사람과의 인연도 그렇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유 지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품에 안고 더하려 한다. 그 때, 저자 는 숲을 본다. 그렇게 비워내고도, 저토록 다시 채움으로 가득한 숲을 보며 그리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때로는 자신 을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 거추장한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비 워낸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걸어오고 있다. 가만히 수동적 으로 들으려만 해서는 나무의 말을 결코 들을 수 없다. 어떠한 행동 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듯, 나무의 말을 들 으려면 보다 나무의 생태를 이해하고, 깊이 사유하며, 스스로를 되돌 아보는 자기성찰의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연은 거저 주지 않 는다. 보이는 만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듣는 것이다. 다시 숲에 한 번 올라가보자. 천천히 느리게 제 보폭만큼, 호흡의 여유만큼 걸어보 자. 언제나 그곳에 있어 왔던 숲의 고요한 속내를 들어보고, 나무마다 새겨진 저마다의 사연에 공감하며, 돌아와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숲 에 사무쳐보자. 🌳



03

WFC2021 KOREA

SAME PASSION NEW VISION

숲을 위한 진지한 축제

세계산림총회 (World Forestry Congress)

우리는 숲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환경 및 생태적 이로운을 누리며, 잊고 있던 자아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한 탓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종종 잃어버리고 만다. 바쁘게 살아가고, 또 살아남는 시대에 살면서, 점차 숲과 멀어지고 무뎈진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다행히도, 인류와 숲의 관계를 조율하고 그렇게 삶에 숲을 심기 위해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다. 바로 세계산림총회(WFC)다. 매 6년마다 열리는 산림 총회에서는 서로 공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법 진지한 축제를 벌인다. 더 나은 삶을,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약속이다.

글 매겨진 숲 편집실

인류의 기원이자 삶의 근원, 숲

좋은 관계가 대부분 그러하듯,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돈독한 우정과 깊은 사랑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았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것. 세계산림총회(WFC)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다. 국제적인 협력하에 숲을 자신처럼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며, 존중하고 교감하는 일이다. 세계산림총회(WFC)의 기원은 언제부터였을까. 제 1차 총회가 개최된 시기는 192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였다.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발전'이라는 주요 의제를 갖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산림 정책 및 국제적인 이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세계산림총회(WFC)가 산림 올림픽이라 불리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스포츠가 언어나 종족,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올림픽처럼, 세계산림총회(WFC)는 산림이 곧 건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15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약 160개국, 1만 여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정도로 이르렀다. 이 모두 숲에 대한 정성어린 관심으로 이뤄낸 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산림 브랜드

그렇다면, 제 15회 세계산림총회(WFC)의 다음 개최지는 과연 어디일까. 대표적인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꼽히며 유례없는 산림 복원 경험을 갖춘,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된 산림을, 산림법 제정을 통한 녹화사업에 매진함으로써 산림비율이 65%(202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인 산지 복구국가로 두루 인정받아왔다. 경제적인 회복에 못지않게 산림 분야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이외에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면서 지역 국가들에게 산림 복원 국가의 참된 표본으로서 녹화 기술 전수를, 나아가 치유 숲, 휴양림과 같은 복지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산림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렇기에 이번 제 15회 세계산림총회(WFC)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산림 브랜드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림 선진국으로써 갖는 의의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된 1954년 인도와 1978년 인도네시아 총회 이후, 약 반세기만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약 3년간의 연차적인 준비과정을 수립하여 산림 공무원, 학계 관련자와 임산업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임업인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인 '파리 협정' 이행의 첫 해이자 생물다양성 협약의 생물다양성 목표가 완료되는 해인만큼, 지속가능한 미래 산림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다 한들, 우리는 숲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자식에게 늘 한결같은, 평생을 여전한 부모처럼 숲은 인류의 진화적 모태이자 우리의 삶을 보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21년 제 15회 세계산림총회(WFC)는 인류가 숲에게 보답하는 작은 정성이자 안부다. 다시 숲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



세계가 고민해온 산림의 가치

2021년은 기후변화협약의 협정 이행 첫 해이며, 생물다양성 협약의 생물 다양성 목표가 완료되는 해입니다. 더불어, 세계산림총회(WFC)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날이기도 하구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숲은 여전히 인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 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맞아 지난 개최국의 주요 논의 의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WFC 개최국의 역대 주요 논의 의제



1991년 제 10차 프랑스 파리
Forests, a heritage for the future
산림, 미래를 위한 유산



1997년 제 11차 터키 안탈리아
Forest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owards the 21 Century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림: 21세기를 위하여



2003년 제 12차 캐나다 퀘벡
Forests : source of life
산림: 생명의 기원



2009년 제 13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Forests in development : a vital balance
개발 속 산림: 필수적인 균형



2015년 제 14차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Forests and People
: Investing in a Sustainable Future
산림과 사람: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

신속한 산불 진화 어떻게 이뤄냈나

안동 · 고성 산불

산불, 진화는 신속하게 피하는 적게

2020년 4월 24일, 그리고 5월 1일, 안동과 고성 인근에 연이어 산불이 일어났다. 계절 특성상 봄철에는 유독 산불이 극심히 일어나는 시기였다. 작년 고성 · 속초 인근에서도 이번 산불과 아주 흡사한 환경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고성의 경우 두 곳 모두 '양간 지동' 지역이었으며, 발생시간도 늦은 저녁으로 역시 비슷했고 바람도 초속 20m 이상이었다. 하지만, 예년 산불과 달리 올해의 산불은 진화시간이 한 시간 짧아졌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눈에 뛴 정도로 최소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성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면적은 다행히 85ha에 그쳤고, 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안동 산불은 재난성 산불로 확대되기 전 무사히 진화되었다. 어떻게 된 일 일까.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자. 이번 안동 · 고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부처 간 능동적인 협업이었다. 산불 발생 직후, 재난안전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소방청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 진화를 담당해 도왔고, 군은 민가주변 산불진화와 뒷불정리를, 경찰은 주민대피 및 산불진화차 진입을 위한 교통 통제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청에서는 미리 편성해놓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화 작전을 펼칠 수 있던 것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진화체계 또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GIS를 기반으로 한 산림 및 기상 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산림의 경사도, 토질, 수종, 사면의 위치와 같은 정보를 중앙산불대책본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초록이 완전히 빛을 발하는 계절. 생명이 본격적으로 움트기 시작하는, 바야흐로 봄이다. 하지만, 봄이 이제 막 도착했다 한들 마냥 즐거울 수만도 없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조심기간이기도 한 까닭이다. 모든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제할 수 없듯이, 산불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 한 건 빠른 대처와 신속한 진화,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다. 이번 안동과 고성 산불 사례를 통해, 산림청이 이뤄낸 성공적인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즉각적인 산불상황판단에 기여해 완벽한 진화 작전을 수행토록 했다.

산림 선진국을 넘어 산불진화 선도국으로

이렇듯 성공적인 산불 진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더욱 철두철미한 산불 진화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대책 마련에도 그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먼저,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농 · 산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산불진화 인력동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를 신기술과 장비를 겸비한 최정예원으로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고, 더불어 산불진화 측면에 있어서 스마트산불 대응과 관련된 R&D를 민간기업과 적극 발굴 · 추진 할 것임을 전했다.

특히, 긴밀한 협업은 이번 산불진화 대응 과정에서 가장 돋보였던 만큼,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하여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구성해 대표적인 산림 선진국을 넘어 세계적인 산불진화 선도국으로 나아갈 발판을 다지고 있다. 매해마다 봄철이면 지속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왔다. 아무리 산불 방지에 힘쓴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상황은 해마다 기필코 찾아왔다. 그 렇기에 이번 안동 · 고성 산불의 성공적인 진화 과정은 아주 값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만큼이나 성공의 경험은 무척 중요하다. 이 성공적인 사례로 산불 대처의 방향성과, 나아가 완벽한 진화 체계 수립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를 기회로, 앞으로 산림청이 산불 진화 신화를 연이어 써내려 갈 것임을 한 번 기대해본다. 🍀



성공적인 안동 · 고성 산불 진화의 7가지 요인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

GIS기반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 산불 확산 예경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빠른 산불상황판단으로 진화작전 수립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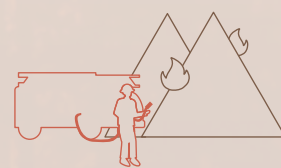
치밀한 공중 · 지상진화작전 수립

계절별 산불양상에 맞추어 차별화된 산불대응 전략 수립으로 공중과 지상진화 간 효과적인 진화작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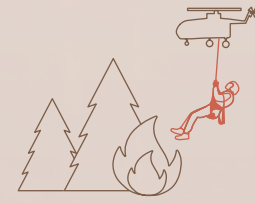
지상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현장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수시로 현장협의회를 통해 현장상황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잔불정리의 효율적인 추진

잔불정리에 동원되는 인력을 담당구역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구역별 완전 진화 확인 조치



지상 진화인력의 활약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와 같은 산불진화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최정예 산불진화 인력의 활약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를 통한 동기 부여로 적극적인 산불 진화 수행

2019

뚝

갈

은

산

불

하

지

만

다

른

결

과

2020

산림청 소식

..... Vol.35



고속도로변 산사태 이전 두렵지 않다

산림청은 고속도로변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로공사, 지자체와 산사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의를 4월 22일 전남 나주시 문평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해에도 산림청과 도로공사·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고속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에 철저히 하여 산사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도 신속히 수습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임을 전했다.



코로나19 위기, 비대면 판촉(마케팅)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비대면(Untact) 수출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에 상품 등록 및 판매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온라인 박람회와 모바일 화상 수출상담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제철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로 사세요!

산림청은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대전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시장을 운영했다. 봄 산나물은 주로 지역축제를 통해 판매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줄줄이 취소되면서 판매처 확보가 어려움 임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어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 소비촉진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 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시아의 푸른 미래 이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설립 이후 기후변화와 산림 훼손에 취약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창립 2주년을 맞아 산림청에서는 AFoCO가 국제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을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기술로 스마트산림 시대를 연다!

산림청은 5월 8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가리산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지 조사 및 산림사업 관리 현장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지 조사 기법 및 표준공정 마련과 효율적인 드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이현주 단장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산림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소득 쑥쑥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산림청은 임가의 효율적인 임업 경영과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2021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한다. '92년부터 시작된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산림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청 인천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은 “산림 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전문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영웅들과 피해자들, 숲에서 치유 받는다

산림청은 지난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용 인원을 70% 수준 으로 축소하여 이용을 재개할 전망이다. 박종호 청장은 “숲을 통해 그동안 위축되었던 국민의 정서를 돌보고 활력 재충전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막화 및 가뭄의 날을 맞아'학생 발표대회'개최

산림청은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6.17)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 국과 함께 '2020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 학생 발표대회(Youth Forum)'를 6월 10일 개최한다.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소재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보고서(1차 심사)와 영어 발표(2차 심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청소년들이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사막화의 심각성 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합동 조사, 복구 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은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발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 조사는 5월 5일부터 15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의 소감을 독자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산림청에서 특별 제작한 '내 나무 키트'를
이번 호 및 다음 호 당첨 독자분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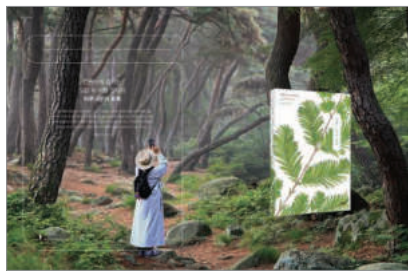


2020 3+4월호 독자 의견



이승란(경기도 성남시)

환절기 황사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한 생활
을 이어가던 차에, 실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스킨답서스' 식물 기르기 편집 기사는 정말 유익
하고 좋았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주며, 인테리어에도 좋다니
꼭 길러 보고 싶네요.



윤지원(전라남도 순천시)

초록의 나무와 숲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이번호 '간편하게 즐기는 도심 속 식물
안내서, 하루 5분의 초록'을 보니 저도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숲속을 거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루 5분, 걸음을 멈추고 초록이 주는 조용한 휴식
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숙(인천시 부평구)

매거진 숲 편집실의 글 '향긋한 봄내음 가득
한상'을 읽으면서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습
니다. 모처럼 저녁 식사에 '취나물 들깨 수제비'와
'취나물 들깨 타코'를 차렸더니, 취나물 들깨향이
가득 퍼져 즐거웠습니다.



박성희(서울시 강북구)

붉게 수놓인 한 떨기의 꽃, 백련사 동백나무숲에
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백련사 동백나무숲 사진을 보고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내년에는 동백꽃 필 무렵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곽동춘(부산시 북구)

'숲의 미래'를 위해 날아오르다, 산림항공본부'를
읽고 따뜻하고 훈훈한 봄철이 되면 산을 찾는 등
산객이 붐벼 자칫 산악사고나 산불이 날 우려가
높은데, 그러한 사고와 재난을 방지하고 신속
대처를 위해 노력하는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애(울산시 중구)

사진으로만 가보고 싶었던 '뮤지엄 산'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셔서 무척 유용했습니다. 소개된
내용을 숙지하고 방문하면 관람시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청정 숲푸드 79가지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소개합니다.

숲푸드(임산물)란?
산나물, 버섯, 수액, 견과류, 과실 등
산림에서 생산 또는 채취되는
모든 임산물입니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사업은?
청정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임산물 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삼지구엽초, 삽주, 참속,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영경귀,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밤, 뽕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북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수액(樹液), 나뭇잎(망개잎), 나뭇가지,
나무껍질(굴피껍데기),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안전하고 영양 많은
우리 청정 임산물 많이 드세요!